

〈한국인구학회의 성립〉 한국이 오늘날처럼 경이로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데는 불과 30여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보릿고개'라는 현상으로 대변되는 배고픈 시절을 벗어나 세계의 모든 나라가 경탄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의 하나는 인구성장을 성공적으로

기 때문에 학문적인 관심도 지대하였다.

그런데 인구현상을 다루는 학문이 인구학(demography)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면서도 학부에 인구학과의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사회학, 경제학, 지리학 등의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의 자연과학분야, 도시공학, 행정학 등의 여러 응용학문분야의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인구현상을 다루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학제간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에 관한 연구는 인구억제라는 정책적인 관심과 학제간 연구관심이 함께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학문적 관점에서 보아도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에서 시작되었다.

95년 사단법인 체제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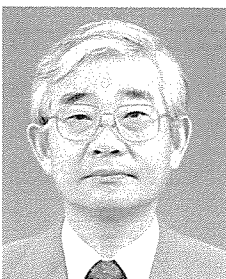
정부는 정부대로 인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인구억제정책을 실시하고, 학계에서는 인구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 한국의 인구문제가 연구되어 왔다. 그러다가 인구문제를 연구하는 여러 학문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학회를 발족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때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2년 한국인구학회가 결성되었다. 한국인구학회는 출발시부터 사회학, 경제학, 보건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학자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타 여러 연구기관, 사회기관에 속한 정책입안자, 연구원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처음 학회가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을 때, 한국인구학회는 임의단체로 시작되었고, 주로 인구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72년 창립 ... 인구억제 정책에 큰 공헌 한국인구학회

1972년 창립된 한국인구학회는 그동안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의 입안과 실시에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 현재 3백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인구학회는 매년 두차례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2회 기관지를 발행하는 등 광범한 학술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로 조절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은 1920년을 전후하여 떨어지기 시작했고, 6.25전쟁 이후 신약의 도입으로 인해 사망률이 더욱 빠른 속도로 낮아지면서도 여전히 높은 출산력 수준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는데 소모될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으로 대표되는 출산력조절정책이 전국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처럼 인구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초부터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에서 촉발되었고, 인구라는 요인이 사회구조와 변동에 갖는 중요성이 컸



權 泰 煥

〈한국인구학회 회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의해서 이끌어졌다. 그러나 인구에 관한 연구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인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일반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항상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구학회는 인구에 관한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탈피하고, 인구현상에 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1995년 학회의 성격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한국인구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구현상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한국인구학회의 회원이 되어,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해마다 두차례 정기학술발표회

〈학회의 구성 및 주요사업〉 한국인구학회는 현재 약 3백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학회의 임원진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 및 2명의 감사로 구성되며, 학회의 원로들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있다. 1996년 현재 한국인구학회의 회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권태환교수이며, 부회장으로는 한국교원대학교 김태현교수와 이주대학교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최진호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구학회의 주요사업은 ①인구연구 발표회의 개최, ②인구학술지의 간행, ③국내 인구통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도의 및 건의, ④인구학의 이론 개발 및 보급, 응용을 위한 제반 학술활동 주관, ⑤인구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사업, ⑥위의 목적에 일치하는 기타 사업 등이다.

이런 주요사업 목표에 따라 한국인구학회는 연 2회 정기 학술발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보통 5월과 11월에 개최되는 전·후기 학술발표회의에서는 출산,

사망, 결혼, 인구이동 등의 인구학의 주요 주제뿐만 아니라 가족, 노동, 보건, 도시, 경제, 환경 등 인구현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사회학, 경제학, 보건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 몸담고 있는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의 전기 학술발표회는 올해가 호구조사규칙을 제정한 지 1백주년되는 뜻깊은 해이어서 전기학술발표회와 아울러 통계청과 공동으로 특별심포지엄을 주최하였다.

연 2회 정기 학술발표회의 말고도 최소한 연 1회의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별회의는 국제 학술회이나 특별심포지엄의 형식으로 열리는데 1995년 경우 지난 30년간 인구변동을 총체적으로 정리, 검토하고 인구변동이 한국인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특별심포지엄의 결과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심포지엄의 결과가 학자들의 연구와 정부의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인구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1996년의 경우, 오는 11월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학자들이 모여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의 출산력, 성비, 남아 선호”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인구학회는 기관지로 「한국인구학」을 연 2회 발행하고 있다. 「한국인구학」은 본래 “한국인구학회지”라는 제목으로 1995년까지 발행되었으나 지난 해에 한국인구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관지의 모습도 일신하기 위해서 제호를 「한국인구학」으로 바꾸고 저

널의 체계도 대폭적으로 바꾸었다. 올 상반기에 「한국인구학」 제19권 1호가 발간된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구학회는 저널 발간을 통한 연구활동 등 학회 본연의 임무를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향후 계획〉 지난 30여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구억제정책의 입안과 실시와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낸 데 기인한다. 이제는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사망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2000년대 초반이 되면 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 30여년 사이에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노인문제가 한국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의 절대감소현상, 노인화문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의 인구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해 여러 가지 상이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및 현재의 인구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인구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는 정책입안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인구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도 대단히 주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저출산률, 저사망율의 인구학적 상황에 학자들과 정책입안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한국인구학회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97